

갯까치수염(*Lysimachia mauritiana* Lam.)의 지피식물용 재배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요인

정은아¹⁾, 전기범¹⁾, 최혜민¹⁾, 문상아¹⁾, 연수호²⁾, 이승연³⁾, 권순태^{1)*}, 이철희^{2)*}

1안동대학교 원예육종학과, 2충북대학교 축산·원예·식품공학부 생물건강소재산업화사업단,
3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

Several Factors Affecting Cultivation of Ground-cover Plants on *Lysimachia mauritiana* Lam.

Eun-ah Jeong¹⁾, Ki-beom Jeon¹⁾, Hye-min Choi¹⁾, Sang-a Moon¹⁾, Su Ho
Yeon²⁾, Seong Yeon Lee³⁾, Soon-tae Kwon^{1)*} and Cheol Hee Lee^{2)*}

¹⁾Dept. of Horticulture and Breeding, Andong National University, Andong 36729, Korea, ²⁾Brain Korea 21 Center for Bio-Resource Development, Division of Animal, Horticultural, and Food Sciences, Chungbuk National University, Cheongju 28644, Korea, ³⁾Useful Plant Resources Center, Korea National Arboretum, Yangpyeong 12519, Korea

갯까치수염은 앵초목 앵초과의 두해살이풀로 지상부가 고사하지 않고, 월동 후 봄까지 뚜렷한 윤기가 흐르는 잎을 가지며, 7~8월에 흰색 꽃이 피는 관상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의 자원식물이다. 이에 신 관상소재로서의 품목개발을 위해 관상 및 조경산업용 가치가 큰 갯까치수염의 지피용 작물로서의 재배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31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10주간 실험하였다. 이식묘의 소질별 생육효과, 기비의 시비와 혼합상토의 조성 및 포트의 크기 등의 이식조건, 차광처리 및 추비시비 등 재배관리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다. 종자로 육묘한 이식묘의 소질로서는 200구 트레이에서 한 cell 당 2립씩 파종된 유묘가 지피용 갯까치수염의 재배에 적합하였다. 이식조건으로 코트비료의 기비는 하지 않고, 마사토:피트모스(3:1) 혼합 용토에 300-200-200 mg□⁻¹(N-P-K)의 비료분을 첨가한 토양을 충전한 4인치 포트에 이식하는 것이 생육에 가장 효과적이었다. 재배관리에선 차광처리를 하지 않고 배치하는 것이 50 및 70% 차광처리보다 초장, 엽수, 엽면적, 생체중 및 건물중 등 생육에 효과적이었다. 또한, 500 mg□⁻¹ hyponex 추비처리를 한 것의 엽수가 36매로 다른 처리의 15~26매 보다 많았지만, 엽면적 및 생체중을 고려할 때 지피식물로서 10주간의 재배를 위해서는 추비하지 않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.

(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“야생화 산업화를 위한 활용도 다변화, 연중재배 및 개화조절 기술 개발, KNA 17-C-38”의 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.)

주요어: 야생화, 관상식물, 지피식물, 혼합상토

T. 043-261-2526, leech@chungbuk.ac.kr